

가족회의...가정 민주화 첫걸음

박혜연 주부 등 다섯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가족노래를 합창한 뒤 박씨의 사회로 가족회의를 열고 있다.

부천YMCA 주부모임 모범사례 안내서 펴내

아빠: "10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자매지만 서로 존칭을 쓰는 것이 예의야."

엄마: "요즘 들어 부쩍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피곤한 일이 있니?"

둘째 딸: "설거지나 세차로 받는 용돈만으로는 모자라요, 일주일에 2천~3천원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부천 기독교청년회(YMCA) 생활협동위원회 주부모임인 교육환경개선분과에서 펴낸 '가족회의 안내' 지침서에 청소년가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된 변승호(47·개인사업)·박혜연(42·주부)씨 집의 가족회의는 미혜(17)·지혜(15)·나혜(15) 세 딸의 쾌활한 웃음 속에서 언제나 진지하다.

박씨 가정이 가장의 권위적 훈시나 가족끼리 서로 눈치만 살피며 걷도는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가족 모임과는 다른 민주적 분위기의 가족회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올 1월초로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던 생협 회원 주부 12명의 모임인 교육환경개선분과에서 지난해 말부터 '바른 가정문화 만들기 운동'의 하나로 권장해온 가족회의의 시범운영 가정으로 뒤늦게 가입하면서였다.

"평소에도 주일이면 온가족이 함께 교회에 오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지만 규칙적으로 가족회의를 한 뒤로는 투정하듯 말하던 아이들이 자기의견을 자신있게 밝히고 아빠도 일찍 귀가하셔서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이번에 나온 '가족회의 안내' 지침서는 시범운영에 참가한 51쌍의 부부와 73명의 자녀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달 동안 기록한 회의록과 경험담을 사례별로 정리해 낸 것인데, 박씨는 전체 생협회원 8백50여 가정이 이 지침서를 토대로 가족회의 운동에 동참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 지침서는 자녀의 연령별 운

영사례 소개를 통해 가족회의가 유아나 국교생 자녀의 가정에서는 바른 자세 갖기, 말 더듬지 않기 등 생활예절 교육의 기회로, 청소년 가정에서는 학업 부담, 욕구 불만 등 사춘기 정서교육으로, 대학생 이상 성인 가정에서는 시사토론 등으로 세대 차를 좁힐 수 있는 좋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침서에는 자동차에서의 회의, 외식할 때의 회의, 맞벌이 가정의 회의 등 각기 다른 생활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돼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가족건강지킴이, 텔레비전 적게보기, 가훈 정하기, 칭찬해주기, 휴일 계획짜기, 술·담배 끊기 가족 협력방안 등 시범가정의 가족회의에서 논의됐던 30여가지 안전과 대화내용도 담겨 있다.

지침서는 이밖에도 가훈의 예,



말하는 훈련·세대차이 극복 좋은 계기 8백50여가정 동참...“조용한 사회운동” 평가

가족노래, 가족이 함께 하는 묵상, 가족회의록 양식과 기록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해 어느 가정에서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회의운동을 맨 처음 제안한 회원 박순진씨는 “발표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보면서 집안에서부터 말하는 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성공적 운영을 위해

서는 회의가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시험에 일등하기·일찍 귀가하기 등 서로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범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 “가족회의가 필요하고 가정화목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으나 “전체가 모이지 않거나, 무리한 실천 계획, 너무 긴 회의시간(30분 정

도가 적당) 등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성민섭 성심여대 교수(사회사업학)는 “입시준비·사업 등 일상에 쫓겨 ‘하숙집’이 돼버린 오늘의 가정위기에 가족회의를 통한 대화와 생활 실천노력은 ‘민주시민을 키우는 가정을 되찾는 조용한 사회운동’이다”고 평가했다. <김경애 기자>